

큰스님 수행한담

풍성한 열매 얻게돼요”



1980년 3월 쌍계사 보살계 계사로 참여한 천운스님(앞줄 맨 오른쪽).

영스님과의 인연으로 일주일을 들어섰다면 지암스님의 인연은 내가 '무(無) 자 화두 정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정식 사미계를 받도록 이끌어준 인연이었습니...

는데 이 부대에서는 매주 수요일 목사를 데려다 정신교육을 실시했어요. 힘든 군 생활이다 보니 기독교인이 아닌 병사들도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따뜻한 음료와 휴식, 그리고 예배가 전부였지요. 그러나 한영·지암스님 밑에서 공부하며 팔발을 먹었던 나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불교라는 전통종교가 있는데 정신교육을 목사만이 말다니 될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다음주 정신교육시간이었습니...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욕심은 또 다른 욕심 낳는 법 불자는 만족함을 알아야해요”

스님에게서 배운 것이지요. 참선을 율곡이 실천하는 것은 스님이 가장 강조한 수행자의 도리인 까닭이고, 대중들의 세간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교가 산중에만 있지 말고 도시와 농촌으로 나와서 교화사업을 활발히 펴야 한다"는 지암스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

포교란 종파·문종·승속을 떠나 불자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불자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특히 승가에서는 복을 짓고나서 수행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임을 깨닫고 이제까지의 안일무사에서 벗어나 전법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학체계를 잡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여기에 포교와 복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인 실천은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복지에 있다고 볼 때 앞으로의 시대가 점점 복지를 중요시하는 복지시대로 가는 만큼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극기생활을 수행의 첫 길로 삼아야 합니다. 즉, 마음에서 욕에서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념, 욕망, 삼독심을 이겨내는 인욕바라길을 행해야 되지요. 성불하기 위해서 출가했는데 이 정도는 능히 이겨내야 부처님 제자라 할

는 없지만, 오직 주먹 하나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만을 뚫고 사방 벽을 판자로 막았던 방에서 수 개월간을 '무' 자 화두만을 안고 살았습니다. IMF를 화두정진만으로 이기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고 분수껏 산다면, 가진 것이 별로 없더라도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스님의 본분이 수행과 포교라면, 재가자의 본분은 불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가자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활한다면 IMF를 이기는 한가지 방법은 될 수 있겠지요.

불교적 세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처님 법대로 겸소하고 소박하고 아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실천의 으뜸은 나보다 못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지금보다 못한 때를, 예전의 어려움을 해결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질붙통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 이게 곧 불교다”라는 뜻이지요. 부처님이 경계하도록 가르친 악(惡)에는 우리들의 검소함을 방해하는 '삼독'이 들어 있습니다. 불자들이 이 계승만 제대로 실천해도 더 이상 고(苦)를 겪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수행자는 말이 없어야 하는데... 항상 쓸모 있는 말,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데, 승(僧)과 속(俗) 어느 곳에든 지 쓸데 없는 망어·양설·악구 등의 말들이 시끄러운 문제의 발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적성 외에는 다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세요. 수행의 결과가 훌륭히 나타날 수 있는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자비를 실천하세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지혜이니 항상 닦아 밝은 지혜를 가지고 생활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나의 수행일기



유홍근

(강서구청 자원봉사계장)

나의 하루 일과는 염주를 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침 출근시 염주를 목에 걸면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 속 깊이 한마음 주인공을 관하면서 출근길에 오른다. 다니는 직장 이 집에서 걸어 20~30분 거리에 있다. 걸는 길에 산책로가 있는 공원도 있어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게 그대로 참선이라"는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집과 직장을 오가면서 마음 속으로 항상 관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업무시작 전 10분 정도 의자에 앉은 채로 좌선을 하고, 일체를 주인공의 시자로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이 없이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직장의 중요한 계획이나 행사가 놀랄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럴때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모든 생

통이라고 하던 우리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시월 종단 때 같으면 내 나이정도면 한참이고 장년이 61세까지 보장되었던 것이, 어느새 50대 중반이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 야단들이다. 동료 또는 선배들이 병퇴, 구조조정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하나같이 이 나이에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서 앞으로의 생활에 걱정이 태산같은 것이다. 직위가 높건 낮건 간에 직장을 떠나면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기에 막막하고, 그저 세월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인생 장년 이후 생활태도의 대부분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나에게겐 영원한 길이 있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여성에는 불법수행의 길을 오로지 달려가고 싶을 뿐이다. 이런 인생의 가치관이 확

매일 업무 시작전 10분동안 좌선 주인공에 맡기는 삶 언제나 평안

활히 수행의 연속이라는 것을.

사량적인 계획이나 행동보다도 주인공 그 자리에 맡겨버려 단 지 심부름만 할 뿐 그 결과에는 관여하지 않는 마음으로 일을 하더라도 힘도 들지 않고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두면서 마음의 작용이 무한함을 알게 되었다.

매주 일요일이면 선원에 가는 것이 생활화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할 정도로 나의 생활은 직장과 집 그리고 선원으로 이어진다. 불자로서 수행생활의 기본이 되는 정기적인 법회활동은 한층 규칙적이고 생기있는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런 나의 생활로 옛날 그렇게 유희를 즐기던 모든 습들을 녹여 버린 것 같다.

이제는 나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내면의 참나와의 무한한 대화로 기쁨을 느낀다. 요즘 어려운 경제난으로 사회 어느구석도 편안하고 조용한 곳이 없는 것 같다.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철박

립되어 있기에 지금 당장 생활 속에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자신이 있다.

나는 인도에 가보지 않았지만, 어느 책에서 본 글씨가 생각난다. 서양사람들은 퇴직하면 눈에 흥기가 없

고 그저 세월만 보내기 때문에 육신이 힘없이 축 처져 있다고 한다. 인도 사람들은 직장을 은퇴하면 몸은 쇠약해도 오히려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빛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도인들은 자기의 영원한 길, 즉 마음 수행의 길이 열려 있고 가야 할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진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우주만물 중에 영원한 진리란 마음의 본래 자리 밖에 없다고 무수한 옛 조사와 선사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요, 생활이 불법이라고 한다.

지금 내 나이 지천명인 50을 넘었다. 이생을 가다듬으며 참다운 삶을 위하여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살아갈 뿐이다. <끝>



남의 고통 나물라라 하니 세상 더 각박 있는대로 다 베풀면 또 채워지는데...

이었던 것입니다. 지암스님이 열반하신지 29년이 흘렀지만, 13년여를 시봉하면서 귀동냥을 하게 된 인연으로 나도 20세 전에 <금강경>을 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지암스님의 <금강경> 독송 소리에서 '일체가 공(空)하고, 해(慧)가 공하고, 공해(空慧)로써 체를 삼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늘 수행의 불꽃을 피워준 핵심이었습니다.

6·25전쟁이 터져 나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요즘에는 '군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군승이란 있지도 않았어요. 단지 미군의 영향을 받아 목사들이 병사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근무한 곳이 2군 소속이라고 기억되

는 것으로 잘 끝났습니다. 돌아가신 한 영스님의 덕을 본 것입니다.

지암스님을 여의고서 나는 조계산 토굴, 도감사·대홍사·선운사 선원을 전전하며 10여년간 참선을 했고, 뒤늦은 감은 있었지만 삼순·호산스님에게서 대교과를 배웠습니다. 또 내 공부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널리 펴고 알리는 포교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힌다는 생각으로 포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나는 대부분 초석(朝夕)으로 두 차례 참선을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고 군부대며 교도소를 방문해 포교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도 따지고 보면 지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씨 뿌리고 부단히 가꾸어야 수확하듯 어려움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뜻한 바가 이루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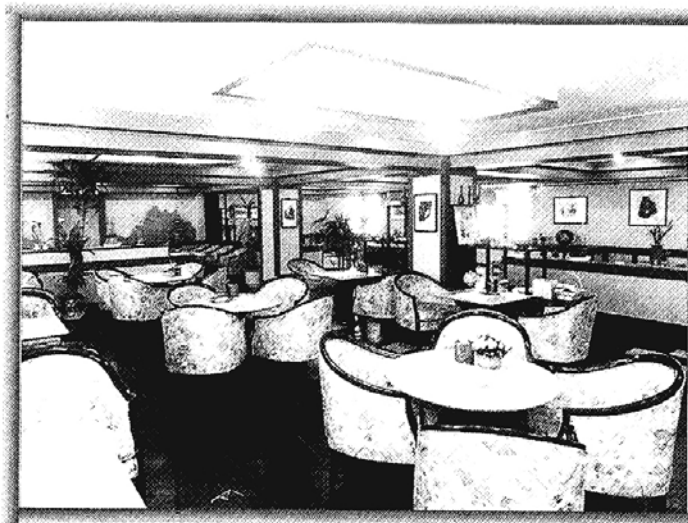
요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IMF라는게 어떤 마구니인지는 몰라도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곳을 찾는 보살이며 거사들의 일상 대화에서 항상 거론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국민 전체가 먹고 쓰고 임는 것을 줄이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다들 왜 IMF 탓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선운사 도솔암에서의 정진이 생각납니다. 생사(生死)를 담보로 한 정진이었죠. 면벽 기간을 정확히 기억할 수

녹수청산이 불교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전통 찻집 '녹수청산'이 중전의 운영형태를 바꿔 불자들을 위한 만남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앞으로는 불교 수행단체의 공부모임이나 작은 법회, 문화강좌, 세미나 개최 등의 경우 불자라면 누구나 장소를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사용을 원하실 경우는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용자께서 별도의 서비스(음료제공, 장내정리 협조 등)를 원하실 경우에는 실비에 해당하는 약간의 법보시금을 받아 이를 군법당, 교도소 등에 보내는 신문발송비용으로 사용케됩니다.



찬마음 불교사랑 운영자 합장

이용안내

- 이용가능한 시간: 월~토요일까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
문의 및 예약접수처: 전화 ☎ 02)736-3782
위 치: 견지동 110-33 안마음불교회관내 (연대불교신문사 지어)
일시 수용인원: 50 ~ 70명